

#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화순 미래 지도’ 바꾸겠다”

## 구 북 구

### 화순군수

구북구 화순군수가 민선8기 군정목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기 위한 69개 정책과제를 선정, 실행계획을 다듬고 있다. 구북구 군수는 재선 의원의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화순 곳곳을 누비고 민생현장을 살피며 화순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화순을 만들 밑그림을 마련해 왔다.

구 군수는 문화관광과 백신·생물의약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과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공급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 ‘따뜻한 복지화순’을 실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농축산업을 육성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해 따뜻한 복지공공체를 조성하고 생활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인구 10만의 활력 넘치는 스마트 화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관광객 500만 시대, 남도관광 1번지  
‘화순의 미래는 문화관광, 백신에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가 민선8기 발전 전략으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문화관광이다. 구 군수는 취임식과 간부회의 등에서 “문화관광 르네상스로 ‘문화관광 군수’가 되고 싶다”며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화순을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남도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 군수의 공약 중에도 문화관광 분야가 가장 많다. 구 군수는 역사·문화·산림 등 풍부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광객 500만 시대, 남도관광 1번지를 만들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 사계절 꽃축제 개최, 화순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화순문화관광재단 설립,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인돌공원 활용 사계절 꽃축제’ 개최다. 구 군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저평가되고 활용도가 낮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일대를 사계절 축제 명소로 조성, 전국 단위 화순 대표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을 내놨다.

구 군수는 “주변 경관과 가장 잘 어울리고 사시사철 관광객을 부르는 매력 만점의 아이템은 꽃”이라며 “16만5,000㎡에 이르는 부지에 봄에는 야생화,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등 사계절 꽃 축제를 열어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표 축제를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동면 서성제 환산제 주변 레저·위락형 관광단지 조성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도민체전과 전국대회 유치 ▲농주권역 문화관광 슬로시티 조성·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 명소화 등 읍면·권역별 특화 관광인프라 구축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성장동력 산업 생태계 고도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생태계 고도화, 100대 기업 육성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첨단의료복합

인구 10만, 예산 1조 원 시대 주력  
탄광 부지 체험형 복합관광단지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총력  
정주환경 개선·생활SOC 대폭 확충  
돈 버는 농촌 지원...관광자원 개발



단지 유치 ▲신규 농공단지 조성, 화순 대표 100대 기업 육성 ▲화순 전통시장 활성화(상설화, 주차공간 확보) ▲반려 동·식물 산업 육성 ▲폐광지역 대체 산업 발굴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에 구축해 온 백신, 생물의약(바이오), 첨단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 조성할 방침이다. 향후 10년간 1조87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화순은 명실상부 백신·바이오 허브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군수는 “백신·바이오산업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생각되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기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확장하고 연계 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면, 충분히 화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TF팀’을 운영하고 민·관·당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점복단지 유치 공감대를 확산, 공론화하고 전방적인 활동을 펼쳐 점복단지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점복단지 조성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청신호는 켜진 상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운영, 골목상

권의 활력을 높이고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유치에도 나선다.

구 군수는 화순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폐광지역 대체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이곳에 박물관과 체험장 등을 조성해 문화관광레저 공간으로 탈바꿈할 구상도 밝혔다. 침체 위기를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창출 ‘농민이 잘사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농촌 만들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구 군수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특화작목을 전국 1등 작목으로 육성하고 귀농 귀촌자·청년 농업인·은퇴자 영농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돈 버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업, 농촌 활력 되찾기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잘사는 농촌 만들기 위해 지역 특화작목 확대 재배와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농산물 안전성 강화, 로컬푸드 출하시스템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과 은퇴자 영농 지원사업 추진, 산림소득사업 확대, 국·공유림 밀원수 확대 재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 정주 환경과 생활SOC를 확충하면서 청년층 귀농·귀촌과 은퇴자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함께 누리는 복지, 교육도시 조성

군민 행복정책도 강화한다. 따뜻한 복지공공체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넓게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공급, 다문화분리·보훈회관·장애인복지회관·세마을회관 건립,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제도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여성·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화순군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이동빨래방 운영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24시간 양육 돌봄 제도 운영, 어린이집 국·공립화 확대, 평생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통한 인문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예산 확대, 청소년

재능발휘 프로그램 지원 계획도 모색 중이다.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할 대책으로 구 군수가 공약한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공급이 주목받고 있다. 구 군수는 “매년 청년과 신혼부부 100명에게 임대료가 월 1만 원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해 청년세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 신도시 선도

‘인구 10만의 스마트도시’ 개발도 역점 사업이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의료·교육·교통·힐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스마트 신도시와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주거단지를 개발해 인구 10만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화순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광주-화순 간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외곽도로 연결 직선도로 개통, 화순읍 남산공원의 상시 불거리 제공과 문화·힐링 공간 조성 등도 추진한다.

구 군수는 “화순천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 밤에는 음악분수가 흐르고 아간 조명 속에서 가족들이 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화순천의 생태문화공원-서성리 양계단지와 전대병원 일대를 잇는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단지 등이 상승효과를 내면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문화도시 화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간조명과 음악분수 등을 설치할 화순천 꽃길 조성사업, 개미산 전망대 설치사업, 고인돌공원 사계절 꽃축제 관련 예산 등은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군정목표를 실현할 동력 확보를 위해 ‘군민 맞춤형 신뢰행정’,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구 군수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남도관광 1번지 화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역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화순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만들겠다”며 “군민을 섬기는 소통행정, 군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펼쳐 새로운 화순, 군민의 일상이 행복한 화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 주요 공약

- ▲고인돌 공원을 활용한 ‘사계절 꽃 축제’ 개최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화순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청년·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공급 ▲화순대표 100대 우수기업 육성 ▲지역 특화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24시간 양육 돌봄 제도 운영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

### 구북구가 걸어온 길

- ▲화순읍장·문화관광과장 등 화순 군정 35년 근무 ▲제9대 전남도의원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왼쪽부터)  
▶구북구 군수가 최근 지역 특화작목 육성 정책 관련 도곡면 소재 복숭아 농장을 찾았다.  
▶구북구 군수가 신임 읍·면장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  
▶구북구 군수가 이장님 다산미술관장으로부터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